단국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2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1] 다음 제시문은 타자 혹은 사회를 대하는 여러 태도들과 관련된 글들이다.

1) [가]에서 주제가 드러나는 문구를 찾고, 그런 입장이 왜 필요한지 간략히 설명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2) [가]에 나타난 인식을 바탕으로 [나]와 [다]에서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

[가] 세종 때 사람 황희는 인품이 원만하고 청렴하기로 소문이 난 정승으로 오늘날에도 공무원의 사표로 추앙을 받고 있는 터이나, 젊은 날의 그는 남에게 너그럽고 원만했던 인물은 아니다. 그 역시 혈기 왕성한 젊은이로서 남의 허물을 따지기 좋아하고, 남의 생각을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터이다.

그러던 그가 한번은 시골길을 가다가 흑황(黑黃)의 두 마리 소를 몰고 밭갈이하고 있는 농부를 보고 두 마리 가운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는가를 물었던 일이 있었다. 이때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황희에게 다가와 귓속의 말로 아무 소가 더 일을 잘한다고 귀띔을 하였다. 아무리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미물인 짐승이라도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좋아할 까닭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늙은 농부의 변이었다. 이 말에 크게 깨달은 황희는 그 동안의 자신의 처신을 깊이 반성하고 남의 처지가 되어 관용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가 나라 일을 맡아보고 있을 때, 제각기 찾아와 갑이 을을, 을이 갑을 헐뜯어 이야기하면 으레 갑과 을에게 똑같이 "당신의 말이 지당하오이다."하고 시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사를 그르치거나, 말을 옮겨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사람들은 본래 동정심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 동정심과 배려의 마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어서, 끝없는 이기심을 보인다.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그의 유명한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도덕을 개인 단위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도 비도덕적 사회 안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도덕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개인이 정당하게 벌어서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생산되는 과정에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혹사당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하여 궁극적인 의미에서 도덕과 정의는 개인과 사회, 양쪽에서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불가피하게도 사회의 구조적 악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사유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존 롤스(John Rawls)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동시에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가치들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하되,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분배상의 불평등—강자들보다 약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분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의 논지를 바탕으로 '지식 탐구의 태도'라는 측면에서 [나]와 [다]에 제시된 방식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 자신의 태도와 기술을 최적화하지 않으면 성공의 기회를 잡기 힘들다. 이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변화를 즐겨야 한다. 변화된 세상은 우리의 우려만큼 그리 두려운 것은 아니다. 정치, 경제, 교육, 가족 관계 등 모든 분야가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다. 특히 개인과 조직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적응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인간이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전통을 존중하여 유지하려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사회를 변혁하려는 방식이다. 어떤 경우는 전자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안정감을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후자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획기적인 진보를 이루어 낼 수도 있다.

[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란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의 관습을 일컫는 말이다. 즉 어떤 제도나 조직도 일단 생기고 나면 여간해선 없애거나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컴퓨터 자판의 왼쪽 맨 위 알파벳 배열은 QWERTY로 되어 있다. 자음과 모음이 뒤섞인 이 배열은 원래 수동 타자기 시절에 글자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빨리 치지 못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후 타자기 제조 기술이 발전하여 글자 엉킴 현상이 극복되어 쿼티(QWERTY)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드보락(DVORAK) 자판 배열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드보락은 기존에 익숙한 타자 습관의 장벽으로 인하여 보급되지 못하였다. 이렇듯 우리가 지식을 얻는 행위도 대부분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사회가 인정한 지식을 학습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

[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란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그의 저서『경제 발전론』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창조적 파괴를 기업가가 기술 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혁신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를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한편 애플의 파괴적 혁신으로 시작된 모바일 혁명은 오늘도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 일상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최근 우리에게 다가온 위키피디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각광을 받는 상품들도 크고 작은 혁신의 산물이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개인과 조직이 창의적이고도 유연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성취되었다. 반면 세계적 기업 코카콜라는 소비자 선호를 잘못 파악한 결과 회사의 명운을 걸 정도의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었다. 1985년 당시 코카콜라는 청량음료 시장을 석권하기 위하여 새로운 코카콜라의 맛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겠다면서 연구한 결과,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톡 쏘는 맛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맛이 약간 덜한 상품을 내놓았다. 그러나 클래식 코카콜라를 마실 권리를 달라는 애호가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다.

[문제 3]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 및 [자료]를 활용하여 [라]의 현상을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이상이나 문화나 다 같이 사람이 추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요, 또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니, 그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즉, 문화는 인간의 이상이 이미 현실화된 것이요, 이상은 현실 이전의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추구하여 실현하는 데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의 공급원으로는 다시 서적이란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 문화인이면 문화인일수록 서적 이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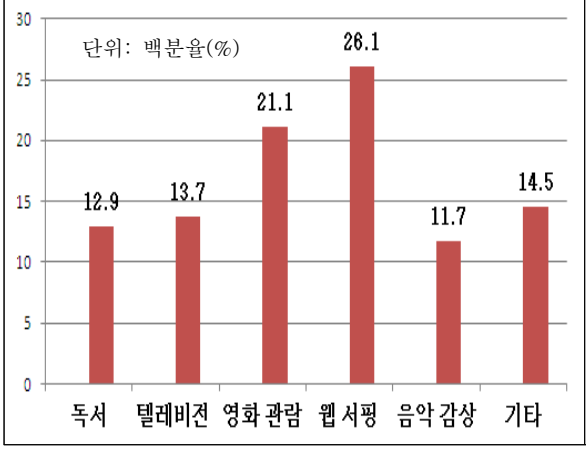
[나] 지금 우리는 '말'의 시대를 지나 '글'의 시대를 거쳐 '이미지'의 시대를 살아간다. 글의 시대에 정보 저장과 전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억압되었던 '형상성'은 이미지의 시대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언어를 통해서만 세계를 개념화하고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언어의 기술적 한계를 인간 사고의 특성으로 알았던 오해가 풀린 것이다.

[다] 제한된 경험 세계에서의 인간의 일회적 삶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삶과 그 진실들을 접하며 그 삶들과 그 진실들을 간접 체험하는 것이다. 책을 통한 이러한 다양한 삶의 간접 체험은 삶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 보임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삶을 보다 풍요롭고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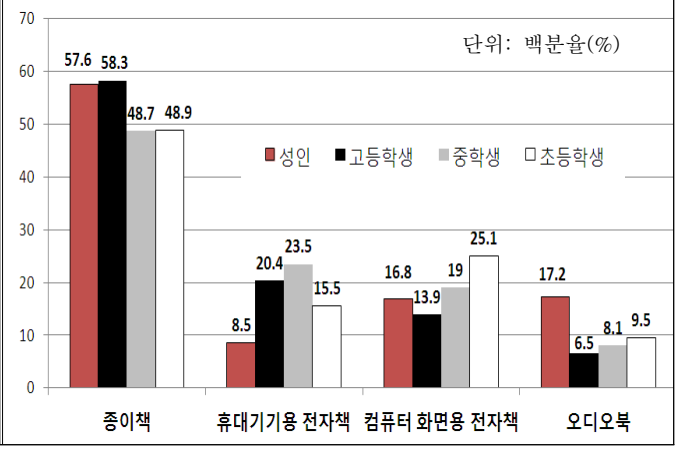
[라] 책을 읽는 일은 영화나 TV 시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따분하고 성가시며 귀찮고 골치 아픈 노동이다. 하지만 독서는 영상 매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영상은 우리의 상상력을 구속하지만 독서는 무한정한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친절히 이끈다. 영상 매체를 나르시스의 앞에 놓인 거울로 비유할 수 있다면, 책은 가부좌를 틀고 앉은 달마 앞의 거대한 벽이라 할 수 있다.

[자료]

<대학생들의 여가 활용 방식>



<국민 도서 형태 선호도>



문제 1

□ 출제 의도

○ 각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황희 정승의 예를 들어 자신만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는 글이다. 주제가 드러나는 가장 적절한 문구는 "남의 처지가 되어 관용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이다. 이러한 입장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만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개인들 사이의 소모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으며 더 큰 일의 판단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의 인식이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타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남의 처지가 되어 관용을 베푸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면, [나]는 타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회 집단으로 확산될 경우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이며, 개인적인 관계에 비해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더 큰 이기심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는 사회 정의 혹은 도덕이라는 것이 개인과 사회, 양쪽에서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 도덕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차등의 원칙'같은 제도적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가]: 황패강(1991), 『두 귀를 씻고 듣는 이야기』, 단국대출판부, 8~9쪽.

○ [나]: 변순용 외(2012),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19쪽.

○ [다]: 출제 위원이 직접 작성함.

□ 평가 기준

1)번 문항

○ 주제를 드러내는 문구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남의 처지가 되어 관용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 (가장 적절)
- 남에게 너그럽고 원만함. (적절)
- 시비가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음. (적절)

◈ 채점 기준

• 위의 사례에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하면 5점.

• "적절"한 답변을 하면 3점.

• 그 외의 다른 답안은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2점 부여함.

○ 그러한 입장이 왜 필요한지를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남의 처지가 되어 관용을 베풂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 큰 일의 판단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음.

◈ 채점 기준

• 일차적으로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이어야 하며, ①소모적인 분쟁의 방지, ②대사(더 큰 일)의 판단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준다는 내용 중,

• 두 가지를 모두 답하면 10점.

• 한 가지만 답하면 5점.

•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가]에서 나타난 인식을 바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 남의 처지가 되어 관용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 (타자의 입장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

◈ 채점 기준

• [가]의 인식에 대한 정확한 언급 여부에 따라 0~5점 부여함.

○ [나]와 [다]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서로 연결시켜 재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함.

- [나]에서 제기한 문제는 타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사회 집단의 비도덕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다]에서 제기한 문제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도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단위의 도덕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임.

◈ 채점 기준

• [가]의 인식과 연결하여 [나]에서 제기한 문제의 정확한 파악 여부에 따라 0~5점 부여함.

• [가], [나]와 연결하여 [다]에서 제기한 문제의 정확한 파악 여부에 따라 0~5점 부여함.

□ 예시 답안

○ 1)번 문항

[가]에서 주제가 드러나는 문구는 “남의 처지가 되어 관용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이다. 황희 정승은 젊었을 때 남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시골길에서 만난 노인이 흑황(黑黃)의 소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크게 깨닫게 되었다. 이런 입장이 필요한 이유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의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모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더 큰 일을 판단하는 경우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번 문항

[가]의 인식은 타자의 입장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나]에서는 타

인의 입장과 이익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집단의 차원에서는 그것의 실현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더 이기적이며 비이성적이어서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에서는 이런 점에서 정의나 도덕의 문제를 개인 단위에서만 논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인 의미의 도덕의 구현은 개인과 사회, 양쪽에서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주어진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지식 탐구의 태도라는 현실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두 가지 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평가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제시된 개념과 설명을 현실 사례(지식 탐구)에 적용하는 사고 역량과 표현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자료 출처**

○ [가], [나], [다]: 출제 위원이 직접 작성함.

□ **평가 기준**

○ [가]에서 제시된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총괄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해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지적하면 5점.
- 두 가지 대처 방안 가운데 하나만 파악하면 3점.
-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2점을 부여함.

○ [나], [다]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나]의 경우 '경로의존성', '사고의 관습' 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파악하며, [다]의 경우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는 태도'를 파악함.

◈ 채점 기준

- 두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10점.
- 둘 가운데 하나의 논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경우 5점.
-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나]와 [다]에서 제시된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지식 탐구 태도와 연관 지어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두 가지 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지식 탐구 태도와 연관 지어 설명한 경우 15점.
- 두 가지 태도의 장단점만을 비교한 경우 10점.
- 지식 탐구의 태도만을 논술한 경우 5점.
-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서는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관습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것을 변혁하려는 것이다. [나]에 나타난 '경로의존성' 현상은 전자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다]에서 설명한 '창조적 파괴'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려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의 지식 탐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나]에 나타난 경로의존성은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는 없으나 안정적인 지식과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된다. 이에 비해 [다]에 나타난 혁신적인 사고는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할 수는 있으나 변화를 위한 노력과 투입 비용에 상응하는 기대 효과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 탐구에서 지닐 바람직한 태도는 기존 질서와 창조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다. 창조는 기존 질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기존 질서를 이해하는 일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노력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한 자료를 이해하고, 자료와 논거의 적절성·객관성·주장의 건전성 등을 비판하며,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제한 문제이다.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의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과 세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독서의 본질이 '의미 구성 과정'에 있음을 고려하여 출제한 것이다. 독서가 의미 구성 과정임을 고려할 때, 독서의 범위는 기존의 종이책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활용한 다종의 매체 자료도 포함된다. 텔레비전과 영화 등을 '본다'고 말할 때와는 달리, '읽는다'고 말할 때에는 매체 자료 수용자의 이해·추론·비판 과정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매체 시대에 올바른 독서 태도와 독서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자료 출처

○ [가]: 이희승, '독서와 인생'

○ [나]: 김형찬, '이미지 시대와 언어의 다양성'

○ [다]: 천승걸, '젊은 시절의 꿈, 그리고…'

○ [라]: 장영우, '책 안 읽는 사회'

○ [자료]: '대학생들의 여가 활용 방식', 『한국대학신문』, 2012.10.13.

'국민 도서 형태 선호도', 『2010년도 출판 연감』, 149쪽.

□ 평가 기준

○ [가], [나], [다]에서 제시한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함. [가]는 독서의 필요성을 밝혔고, [나]는 이미지가 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음. [다]는 간접 체험의 유일한 방편이 책 읽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채점 기준

- 세 자료의 논지를 모두 파악하면 10점.
- 두 자료를 파악했으면 8점.
- 한 자료만 파악할 경우 6점.
- 뭉뚱그려 파악할 경우 4점.
-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3점을 부여함.

○ [라]에 나타난 현상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라]에서는 영상 매체와 독서를 구분하고, 독서는 상상력의 측면에서 영상 매체가 감당할 수 없는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시됨.

◈ 채점 기준

- '상상력'을 준거로 영상 매체보다 독서의 효용성이 높음을 파악했으면 10점.
- 상상력이라는 준거를 기준으로 파악하지 않고, 독서의 효용성만을 논할 경우 5점.
-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라]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주장의 건전성과 타당성, 논거의 적절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 논지 전개의 합리성 등이 있음. 예를 들어 [라]의 필자는 '상상력'의 측면에서 "독서가 영상 매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효용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상상력'이라는 전제에서 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야 한다. 논증 결과는 이 전제를 고려할 경우 [라]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상 매체와 독서의 효용성이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하더라도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거나 영상 매체가 더 효용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 채점 기준

- 비판 과정이 적절하게 드러나면(옳고 그름을 따지는 과정이 있어야 함) 10점.
- 비판의 준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점수를 부여함.
-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자료]를 해석하여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제시한 [자료]는 두 가지로, 하나는 대학생들의 여가 활용 방식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영화 관람이나 웹 서핑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 도서 형태 선호도'에서 종이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도 읽기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자료를 바탕으로 '독서 현상'도 매체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두 자료가 갖는 의미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수험생이 선택한 논지 및 주제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나]의 논지를 수용하여, 형상성과 이미지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논지를 전개한다면, '대학생들의 여가 활용 방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국민 도서 형태 선호도'의 전자책에 대한 선호 정도를 고려하여 여가 활용 방식 개선을 논할 수도 있고, [다]의 관점에서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차원에서 독서의 중요성만을 옹호한다면, '대학생들의 여가 활용 방식'에 나타난 영화 관람이나 웹 서핑의 높은 비중이 '국민 도서 형태 선호도'에 나타난 매체 변화 양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논술할 수도 있다.

◈ 채점 기준

- 자료 활용 과정이 드러나고 주장이 타당하면 10점.
- 자료 활용 과정이 드러나나 논거나 주장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5~8점.
-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예시 답안

○ 예시 1

[가]에서는 이상과 문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적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서는 오늘

날 말과 글의 시대를 지나 형상성과 이미지가 중시되고 있으며, 이들 요소로 개념화와 논리적 사고를 보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비해 [다]에서는 간접 경험을 위해서라면 책 읽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독서의 의미와 가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라]에 제시된 현상은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차원에, 독서는 영상 매체와는 분명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나 텔레비전은 단순히 보는 데 그치지만, 독서는 책을 읽고 이해하고 추론하며 비판하는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라] 글의 주장은 타당성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들의 여가 활용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영화 관람이나 웹 서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사실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이를 고려할 때 독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독서는 종이책을 읽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 도서 형태 선호도' 조사 자료에서 휴대용 기기나 컴퓨터 화면용 전자책에 대한 중고생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듯이, 매체가 변화함에 따라 독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독서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 **예시 2**

[가]에서는 이상과 문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적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서는 오늘날 말과 글의 시대를 지나 형상성과 이미지가 중시되고 있으며, 이들 요소로 개념화와 논리적 사고를 보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비해 [다]에서는 간접 경험을 위해서라면 책 읽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독서의 의미와 가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라]에 제시된 현상은,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차원에서 독서는 영상 매체와는 분명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논지대로 형상성과 이미지는 개념화와 논리적 사고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제시 자료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여가 활용 방식은 매체 문화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은 영화 관람이나 웹 서핑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문제는 영상 매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국민 도서 형태 선호도'에서 휴대 기기용이나 컴퓨터 화면용 전자책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듯이, 발달된 매체가 독서 문화를 저해하지 않고 있듯이 영상 매체를 올바르게 읽고 수용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 문항별 채점 요소에 따른 배점 표

문 항		채점 요소	배 점	총점(100점)
[문제 1](30점)	1)번 문제	○ 주제 문구 찾기 + 설명	5점	15점
		○ 입장 제시 + 요약 능력	10점	
	2)번 문제	○ 인식 파악 능력	5점	15점
		○ 문제점 연계 + 재구성	10점	
[문제 2](30점)		○ [가] 독해력	5점	30점
		○ [나], [다] 이해력	10점	
		○ 비교 설명 및 적용 능력	15점	
[문제 3](40점)		○ [가],[나], [다] 이해력	10점	40점
		○ [라]의 논점 파악 능력	10점	
		○ 비판 능력	10점	
		○ [자료] 해석 능력	10점	